

## 제7차 세계물포럼의 의미와 성과

- SDGs와 기후 변화 등 국제적 어젠다 설정에 선도적 역할 기대

이정무 |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장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Our Future)’을 주제로 대구와 경북 경주에서 있었던 제7차 세계물포럼이 지난 4월 1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68개국 4만 6,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계물포럼은 역대 포럼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대회 규모 못지않게 해외 주요 인사들의 참석도 큰 화제가 됐다. 투르크메니스탄·헝가리·에티오피아·타지키스탄 대통령 등 9개국 정상급 대표와 6개국 국회의장과 4개국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27개국에서 71명의 국회의원, 127개국 106명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역대 어느 국제행사보다 많은 고위급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4.12~17일까지 6일간의 논의를 통해, 7차 세계물포럼의 핵심 가치인 ‘실행’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고, 저개발 빈곤 국가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공동 협력하고 행동할 것에 합의를 이뤘다. 각료 선언문과 국회의원 선언문, 대구·경북 물 행동선언의 각종 정치적 선언문에 이어, 폐회식에서 ‘대구·경북 실행 협약(Daegu & Gyeongbuk Implementation Commitment, 이하 DGIC)’을 공식적으로 채택·발표한 것도 이번 대회의 큰 성과다.

대구·경북 실행 협약(DGIC)은 포럼의 주요 성과물인 16개의 주제가 담긴 실행 로드맵을, 물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의 20개의 기관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것으로, 이번 세계물포

럼을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천하고 구현해가겠다는 약속의 장으로서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다.

세계물포럼을 통해 세계 물 관련 기관의 관료들과 물 전문가 기업들에게 우리나라의 높은 물 관리 기술을 홍보하고, 국가 간, 기관 간 18건의 MOU와 48회의 양자·다자 회담이 진행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위한 활로를 여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남는다.

2015년은 UN이 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종료되고, 향후 15년간 인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는 전환점인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리는 해로,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과들은 향후 지구촌 물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SDGs와 기후 변화 등 국제적 어젠다 설정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생명의 근원이며 다른 어떤 자원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 블루골드(blue gold)로서 물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물 문제의 심각성과 물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切感)하고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물 절약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CERIK